

제18회 한·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

- 2017.8.28일 제18회 한국·일본(호쿠리쿠) 경제교류회의가 개최되어 한일 양국에서 약 170명이 참가
- 이번 회의에서는 ‘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지방간 협력’을 테마로 지자체, 기업, 대학교 등 관계자들이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발표

□ 개요

- 2017.8.28일 한국산업통상자원부, 일본경제산업성중부경제산업국, 한일경제협회, 한일산업·기술협력재단, 호쿠리쿠경제연합회, 호쿠리쿠AJEC의 주최·주관으로 제18회 한국·일본(호쿠리쿠) 경제교류회의가 개최되었음
 - 일본에서는 호쿠리쿠 3지역(도야마, 이시카와, 후쿠이) 관계자를 중심으로 52명의 단원이 8/27~8/30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, 회의 및 시찰 (국립 중앙 박물관, 안동 하회 마을, 경상북도청, 도레이첨단소재(주))에 참가
 - 한국에서는 경상북도, 강원도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120명이 회의에 참석
- 개회사에서 한일경제협회의 서석승 부회장은 “한일은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 국가라는 관계를 원점으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”고 언급
 - 호쿠리쿠경제연합회의 규와 스스무 회장은 “한일이 안고 있는 공통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”이라고 코멘트
 - 또한 축사에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이영환 통상협력심의관이 “한·호쿠리쿠경제교류 회의에 있어 토론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”고 하였음
- 2017.8.28일 오전은 본회의, 오후에는 2가지 분과회(지자체, 이노베이션)와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가 진행되었음



<본회의>



<경상북도청 시찰>

□ 전체회의 각 발표 내용

[1] 지방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성과와 과제

((사)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상임이사)

1. ‘사회적 기업’이란

- 한국의 ‘사회적 기업’은 취업취약계층(노인, 장애인, 장기 실업자, 결혼이민여성, 미혼모 등)에 대한 고용 및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공헌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으로 한국 고용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
-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제도가 도입되어 올해(2017년) 10주년을 맞이함
- 민간 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가 어려운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

2. 경상북도의 사회적 기업 현황

- 경북의 사회적 기업 179개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수는 2,213명 (2016년 11월 기준)으로, 이 중 취업취약계층의 비율은 61.1%
-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지만 한국의 일반법인 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30 %에 못 미친 반면, 경북의 사회적 기업의 폐업율은 12%에 불과함
- 또한 최근에는 젊은 층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참여가 늘고 있으며, 경북의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 연령이 20~30대인 비율은 13%

- 경북의 사회적 기업의 주요 거래처는 지역이며, 기업이 위치한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판매가 67.6 %를 차지함
- 이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
- 영업 이익은 크지 않지만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 많은 기업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
- 그러나 역시 자금난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, 또한 전문성과 홍보가 부족한 기업도 많음
- 그래서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‘사회적 기업 종합상사’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

3.보다 풍부한 미래를 위하여

-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리더십, 기초 자치 단체의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
- 또한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이미지가 쏙아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요구됨

[2] 호쿠리쿠 지역 경제의 현황과 호쿠리쿠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에 대해

(중부경제산업국 하타노 아츠히코 국장)

1. 호쿠리쿠 지역 경제 현황

- 호쿠리쿠 지역의 인구 및 지역 내 총생산의 일본 전국시장 점유율은 2.4%
-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하여 호쿠리쿠의 제조품 출하액은 전국과 비교하여 ‘일반·생산·업무용 기계’ 및 ‘전자부품·장치’의 비중이 높음
- 지역별로 보면, 도야마에서는 의약품을 비롯한 화학 공업품 및 비철 금속, 알루미늄 건축 자재 등의 금속 제품 출하액이 크고, 이시카와에서는 생산 용 기계 장비, 전자 부품·장치·전자 회로, 섬유 산업 등, 후쿠이에서는 전자부품·디바이스·전자 회로, 화학 공업 제품, 섬유 공산품의 순으로 출하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
- 호쿠리쿠의 무역에서 아시아 지역이 수출 총액의 약 60%, 수입 총액의 약 50%를 차지
- 한국과의 무역은 수출 총액의 약 23%, 수입 총액의 약 10%를 차지

- 주요 수출 품목은 건설기계, 비철금속, 과학광학기기 등이며 수입 품목은 석탄, 비철금속, 식물 용 원사, 섬유 제품 등

2. ‘미래투자전략 2017’과 호쿠리쿠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

- 아베 내각이 내세운 미래투자전략 2017은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모든 산업이나 사회 생활에 도입,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Society5.0(超 스마트 사회)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
- 이를 위해 (1)건강 수명의 연장, (2)이동 혁명의 실현, (3)공급망의 차세대화, (4)쾌적한 인프라 마을 만들기, (5)Fin Tech 등 전략 분야에 힘을 넣어 갈 계획
- 이 외에 Society5.0을 향한 과제의 해결, 지역 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, 해외 성장 시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해 나갈 방침
- 또한 아베 내각은 지방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호쿠리쿠 지역에서는 생명과학·고기능 신소재 관련 산업을 전략적 성장 산업으로 정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‘호쿠리쿠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’을 추진

3. 중부 경제 산업국의 노력

- 호쿠리쿠 지역의 우수한 소재·부재, 생산용 기계 등의 카와나카 산업(川中産業; 중간 지원 산업)과 일본의 태평양 연안 지역의 사용자 산업을 연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조 능력의 향상에 연결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성장 산업의 창출에 노력
- 또한 호쿠리쿠의 전통 공예품과 발효 식품, 웅대한 자연 등 풍부한 지역적 자원을 타업종 기업 및 연구 기관과의 연계에 연결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과 융합시켜 ‘버는 힘’을 강화하는 등 지역적 자원의 활용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

[3] Co-work를 통한 신제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 사례 -성인용 기저귀 개발-

((주)信友P&C 김종호 대표이사)

1. (주)신우P&C 소개

- (주)신우P&C는 2002년 5월에 설립된 필터 재료 및 위생 분야의 기능성 소재를 취급하는 기업으로 실버 위생 용품도 전개하고 있으며, 성인용 기저귀 브랜드인 ‘카네이션’은 국내에 대리점이 54점포, 대형 시설 6개소에 입점

- 성인용 기저귀 시장의 12%(2015년 기준)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카네이션 속기저귀의 점유율은 30%에 달해 브랜드 1위를 기록
- (주)신우P&C는 일본 야마구치현에 소재한 주식회사 ‘히마와리’와 파트너십을 제휴하고 있음
- ‘히마와리’는 간호·간병 용품 등의 제조·도매·판매를 하고 있으며, 특히 일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많은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음

2. 공동 개발 사례

- 한국은 2015년에 노인 인구가 12.9 %로 증가했으며 성인용 기저귀 등의 실버 위생 용품의 수요가 증가
- 2012년에 840억 원이었던 한국의 성인용 기저귀 시장은 2016년에는 1,741억 원을 돌파하는 정도로 급속히 확대
- 일본에서는 성인용 기저귀 시장은 2013년 1,650억 엔을 기록
- 한국에서는 성인용 기저귀의 약 70%가 병원·간호 시설에서 사용되는 반면, 일본에서는 병원보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양이 더 많음
- 따라서 일본에서는 인체에 쾌적성, 소취성의 추구 등 제품의 고급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
- 일본의 소비자 요구를 분석한 결과, (주)신우P&C가 개발한 녹차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기저귀가 일본에서도 통용되는 것을 확신
- 전략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(주)신우P&C가 녹차의 선정·가공 시트의 개발 등을 담당하고, '히마와리'가 요양 시설의 요건 및 일본의 녹차 문화에 대한 정보의 공유, 필드 평가 및 피드백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사에서 역할을 분담
- 2017년 8월에 '히마와리'에 의한 소비자 테스트의 시제품 필드 평가 및 개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완료, 9 월부터 제품 양산 및 공급에 들어갔음

3. Co-work을 통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의 신뢰 구축

- 일본은 실버 용품의 선진국이며 일본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

- 또한 실버산업 관련 마케팅 노하우를 일본이 제공하고, 기술력 있는 한국이 제품을 개발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하나의 상품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한일 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임

[4] KNT(나카무라도메정밀공업(주) 한국법인) 현황에 대하여

(나카무라도메정밀공업(주) 무라모토 에이지 상무이사)

1. 한국 진출의 경위

- 지산지소(地產地消)가 아니라 70%의 수출을 살리기 위해 국제 분업의 거점으로서 진출 지역을 검토한 결과, 한국을 선택
 - 한국 진출 시 고도한 정밀기계 제작 능력, 화이트 국가(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될 우려가 없는 국가), 수출입 편의성,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고려
 - 특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카무라도메(주)에게 일본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FTA의 혜택 요소는 중요했음
- 대구에 진출한 이유는 (1)입지 조건에 부합한 산업단지(대구 테크노폴리스)의 존재, (2)대구·창원 등의 기계 산업 지역에 가까운 곳, (3)서울이나 부산에 비해 토지 비용·인건비가 저렴함, (4)대구시가 투자 유치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것 등

2. KNT 현황

- 2013년에 양산을 시작하여 2017년 5월 생산 대수 500대를 달성
 - 2015년에 매출이 약간 떨어졌을 때 2기종 제의 설계·제작을 시작하여 2016년에는 매출이 다시 회복
 - 수출은 모두 부산항을 통하고 있으며, 판매처의 46%가 유럽, 26%가 북미, 23%가 아시아 지역
- 직원은 35명(2017년도)으로 이 중 33명이 한국 현지에서 채용된 인원
 - 그러나 2012~2017년의 이직률이 54%로 퇴직 이유는 ‘임금 불만’과 ‘업종이 맞지 않다’라는 것이 62 %를 차지

- KNT 사원의 일본 연수, 친목회, 보너스 외의 성과급 지급 등 기업 풍토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직률이 높은 것이 과제
- 한편, 자비로 일본 본사 공장 견학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직원도 있음

3. Made in 나카무라도메의 생산 방식

- 기업의 규모는 작아도 세계 일류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 노력
 - 이를 위해 일본인에 의한 기술 교육과 동영상을 사용한 표준 작업 확인으로 품질 향상을 도모
 - 또한 공정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만큼 필요한 시간에 꺼낼 수 있도록 부품이나 치공구의 배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용 삭감
 -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유연한 변종·변량 생산 시스템 ‘혼류(기종혼합) 택트 컨베이어 라인’으로 인하여 생산 리드 타임 단축에 성공
- 그러나 일본에서는 변종·변량 생산 방식이 일반적이지만, 한국에서는 아직도 소품종·대량 생산 방식이 많아 국내 공급 업체와의 차이가 있음
 - 또한 한국의 최저 임금이 고등하여 일본 현지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등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

[5]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, 수성의료지구

(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박광용 유치지원 1팀장)

1. 대구·경북의 현황

- 대구·경북 지역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모태이며,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2015년 세계 물 포럼 개최 등 세계적인 이벤트를 다수 개최
 - 1980년대에는 섬유·의류 산업이 번성했지만 2010년대부터 IT 융복합·SW·의료·신소재 등 글로벌 지식 기반 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
- 대구·경북 지역에는 다양한 지역 산업 단지가 있으며, 3,000개 이상의 부품·소재 관련 중소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

- 또한 삼성, LG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관련 대기업, 현대 등 자동차 관련 기업, SK 등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음
- 일본계 기업도 130개사가 대구·경북 지역에 투자

2. 글로벌 의료 관광과 첨단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, 대구

- 대구는 35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대구 약령시가 있고, 양·한방 통합의료진흥원이 운영되는 등 한국의 한방 의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음
- 또한 100년의 전통을 가진 의과대학병원 5곳, 종합병원 12곳,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이 6곳이 있으며, 1,200명 이상의 의사, 7,500명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
- 매년 1 만건의 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등 최적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
- 또한 영화 ‘아바타’의 CG 애니메이션 작업의 일부를 대구의 기업이 담당하는 등 IT/SW 산업이 발달
- 경북도청 오피스, 동대구 벤처 밸리, SW 융합 클러스터(수성의료지구)의 3개 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
- 다양한 연구지원 기관이 기업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 기업에게 최고의 환경을 조성

3. 수성의료지구 소개

-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(DGFEZ)은 2008년에 정부 기관으로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대구·경북 지역에 8곳의 지구가 있음
- 그 중의 하나인 '수성의료지구'는 도시 중심부에 설치된 미래창조형 메디컬IT 단지이며, 검진과 치료, 회복 및 휴식,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의료 관광 단지
- 또한 수성의료지구는 안전한 도시, 편리한 시민 생활을 제안하는 스마트 시티로서 개발되었음
- 지구는 SW 융합기술지원센터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지원 시설도 입주되어 있으며, 근처에는 많은 연구 시설과 국책 연구 기관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

[6] 대학에 의한 지역활성화

(가나자와공업대학 진로개발센터 토쿠나가 미즈하루 소장)

1. 가나자와공업대학 그룹의 사회 활동

- 가나자와공업대학 그룹은 현재 2018년 4월에 오픈하는 가나자와공업 고등전문학교 하쿠산(白山)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음
 - 이 캠퍼스에서는 에너지 문제와 고령화 사회 문제, 인프라 점검 문제 등의 이노베이션을 추진시켜 나갈 예정
 - 또한 가나자와공업 고등전문학교의 명칭을 국제고등전문학교로 변경하고 영어와 STEM (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Mathematics) 교육에 주력하여 글로벌 이노베이터의 양성에 노력
-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Society5.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련된 인재 육성이 필수
 - 일본의 대학은 유럽과 달리 18세~30대까지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있는데, 이 인재를 활용하여 지역 창생의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방 대학의 역할


2. 데이터 기반 시대의 지방 창생

- 가나자와공업대학 그룹은 향후 지역에 밀착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의한 과제의 해결을 도모해 나갈 계획
 - 특히 하쿠산 캠퍼스를 중심으로 ‘스마트 사토야마(里山) 도시’를 전개하여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사토야마 데이터의 수집·제공·축적에 의해 3개의 레이어(도시 데이터, 도시 플랫폼, 도시 애플리케이션)을 정비하고 사토야마 도시에 요구되는 기능의 ‘본질’을 도출
- 과소 지역을 연구 현장으로 한 ‘사토야마 도시’에 있어 산업계·지자체와 함께 가나자와공업대학 그룹의 연구소가 가진 다양한 기술을 집결한 산학 연계형 연구를 진행하여 사토야마 도시의 새로운 기능(라이프 스타일)을 창생
 - 지역에 공헌하는 이공계 종합 대학으로서 지역 창생 혁신의 실현과 사회에 가치 발신에 기여

3. 가나자와공업대학의 연구·교육

- 지역 창생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, 그리고 지역 주민도 다 같이 추진해 나가야 실현 가능하며, 가나자와공업대학에서는 세대·분야·문화를 초월한 공동 창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예를 들어,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가 학생과 함께 배우는 '사회인 공학(共學)자'를 늘려 기업과 학생 간의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이나 기업에 대한 자극 등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음
- 또한 해외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브레인 스토밍함으로써 일본의 재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임

□ 시사점

- 한국은 서울만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방의 노력과 지방 기업·교육 기관의 활동도 흥미롭고 유용한 것이 많음
- 한일 지자체 간 및 대학교 간 협력은 기업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며, 이러한 지역간 회의에서 사례를 소개하면서 양국이 서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
- 한국·일본(호쿠리쿠) 경제교류회의는 2000년에 도야마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개최되어 왔음
- 정보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향후 구체적인 협력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한일 지역간의 경제교류회의 개최 의의라고 할 수 있음
- 계속 교류해 나가면 지역·지자체 단위를 넘어 다양한 한일간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대됨
- 다음 ‘제19회 한·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’는 2018년에 일본 후쿠이에서 개최 예정. 

<참고자료>

한일경제협회(2017.8.28.) “제18회 한국·일본(호쿠리쿠) 경제교류회의 자료집”